

“복합쇼핑몰 등 ‘5+1 사업’ 성과 AI 인프라 구축…기업 대거 유치”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

민선 8기 강기정호가 3년을 맞았다. 강기정 시장은 취임 초기 해묵은 광주 현안사업, 이른바 ‘5+1’ 사업이 대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자산 나들목 활용, 백운광장 지하차도, 복합쇼핑몰 등 5개 사업과 임기 내 완전 해결이 불가능한 1개 사업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길게는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해 ‘밀린 숙제’로도 불리는 어등산 관광단지,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복합쇼핑몰은 착공을 앞두고 있고 군 공항 이전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해묵은 숙제 해결에 집중하면서도, 또 다른 한 축으로는 AI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전국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통합돌봄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더 알하기 좋은, 더 누리기 좋은, 더 살기 좋은’ 광주로 변화 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도.

실제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센터 개소 등 인공지능 중심도시 구축에 나서 타 지자체 보다 빠른 AI인프라 조성을 통해 AI기업들을 유치하고 협력을 맺어 고용 창출을 기반을 다졌다.

퓨리오사, 에임퓨처 등 300여 혁신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AI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임기내 목표로 한 5000억 창업혁신펀드 조성은 현재 6200억 조성을 넘어 1조 투자펀드 조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

정부 목표보다 5년 이른 ‘2045년 탄소중립 도시’를 이끌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기반 조성, 전국 자치단체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은 통합돌봄은 광주시가 자평하는 주요 성과로 꼽힌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의료돌봄과 공동체돌봄으로 확장돼 대한민국 복지 표준모델이 인정받았고, 전국최초 ‘24시 공공심야

2045 탄소중립 ‘대·자·보도시’ 조성
광주다움 통합돌봄 국가 표준 모델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분담비율 조정 필요

어린이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더 촘촘해졌다. 초등생 학부보 10시 출근제, ‘손자녀 가족돌봄미’, ‘산단근로자 아침밥 제공사업’, ‘최종증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반값 대중교통 G패스’, ‘대각선 횡단보도’ 사업은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우는 정책이 됐다.

산업면에서도 14년 만에 100만평 미래차 국가 산단 유치, 의료특화산단 조성, 진곡산단·빛그린산단·미래차 산단을 아우르는 220만평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노후 송암산단 미래차 콘텐츠 산단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이른바 ‘산업의 그릇’을 키워내고 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꿀잼도시’ 조성의 한 축인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은 다음달 7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광주신세계 ‘그레이트 시티 광천’도 신속한 행정절차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되는 만큼 버스 체계 개편도 1·2차로 나눠 개통 이전에 1차 개편을 시행한다.

다만 호남고속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일부 예산을 집행해 공사가 시작되면 총 4000억원이 넘는 광주시 부담금 납부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광주시는 분담비율 조정 등을 진행 한 뒤 공사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광주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군 공항 이전이라는 최대 현안의 실마리를 푼 만큼, 소비와 민생 회복 등 다른 주요 현안도 해법을 마련해 조만간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민경제 회복에 도정 역량 집중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 극대화”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마지막 1년에 주안점을 둔 건 민생회복이다.

경기침체로 소비부진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도내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그 어느때보다 지역 경기가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서민 경제 회복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 4월 5373억원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한 것도 빠른 예산 집행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트럼프 관세 여파가 본격 작용한 올해 5월 전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8.7% 감소한 34억 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도내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여수시가 정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와 함께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부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가 최근 새 정부의 추경안을 반긴 것도 비슷한 이유다. 전남도는 전남도와 관련된 예산은 모두 6025억원이 반영됐다. 이 가운데 이번 추경의 핵심사업인 전국민 민생지원금 예산은 3570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역화폐 발행에 들어갈 국비 428억원도 확보했다.

전남도는 새 정부 추경안이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3년 간의 성과로도 도민의 민생을 챙긴 것을 앞세웠을 정도로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김 지사는 ‘긴급민생안정대책’, 출생기본수당, 자립수당, 경

에너지 수도 전남 등 10대 과제 설정
전남 국립의대 내년 인원 배정 노력
청년층 유입 정책 소멸위기 극복해야

력이음바우처 등을 민선8기 성과로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변화와 혁신의 전남, 에너지 수도 전남, K-컬처 미래 트렌드 창출, AI 첨단 농업 메카, SOC 확충, 보편적 복지를 통한 기본사회, 365안전지대 전남 등도 1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민선 8기 3년 동안 매듭지어 지지 않은 굵직한 현안사업들도 서두르고 있다.

전남 국립의대의 경우 민선 8기 내내 김영록 지사가 큰 공을 들인 현안이다. 12·3 계엄과 와·정 갈등 등 외부요인으로 결국 당초 목표했던 내년도 개교가 무산됐지만, 내년 상반기 내 의대 인원 결정권을 갖는 의료인력 공급추계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인원이 배정된다면 국립 의대설립이 성공을 거두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전남 국립의대는 최우선으로 약속된 만큼 내년도 의대 인원 배정은 희망적인 상태다.

이외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발맞춰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한 기본소득 시대,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타운홀 미팅에서도 전남의 재생에너지 육성을 약속한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은 올 1분기 합계출산율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 앞서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 정책 외에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청년층 유입을 이끌어 낼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정책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